

전통시장·지방상권에 소비 집중… 外人·관광객 이용 넓힌다

중기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전통시장 사용 땀 총 10% 혜택
지방 골목상권은 총 8% 적용
알리페이 등 해외 결제앱 연동
지역관광·가맹점 기준도 손질
※ “상인 매출 키울 마중물”

정부가 전통시장과 지방에 있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18년만에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한다.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구매시 5% 할인+사용후 5% 환급’을 통해 총 10%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골목상권(총 8%)은 수도권 골목상권(총 5%)보다 할인·환급 혜택을 더 많이 준다.

외국인 관광객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알리페이’ 등 각 나라에서 사용하던 결제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구축한다.

수도권보다 취약한 지역 상권을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지방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지난달 14일 대구 중구 i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구매행사’에서 참석자가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뉴시스

을 살리기 위해 중기부가 2009년부터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류(종이)형과 디지털형이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3조9500억원)의 65%(2조6000억원)는 전통시장에서 소비됐다. 현재 디지털온누리 앱 가입자 수는 1868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의 선환인율을 7%에서 5%로 낮추고 실제 이용처에 따라 차등환급 혜택을 지원한다. 지역화폐는 지방 내 생활상권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특화된 특성을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전국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

권을 쓰면 총 1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의 경우 지방과 수도권 간 소비 환급 혜택에 차등을 뒤 지방 골목상권에 선 5% 선환인에 3% 환급(총 8% 혜택)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소비 환급 혜택이 없다. 다만 지류형은 특성상 소비처 파악이 어려워 선환인 5%만 적용된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방 취약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골목형상점가와 가맹점 지정 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점포 15개(인구감소지역은 10개)만 모여도 골목형상점가가 될 수 있었지만 시군·구 재정지출도에 따라 차등 기준을 마련했다. 상위 25%는 30개 이상, 중위 20%는 20개 이상, 하위 25% 또는 시

장 반경 1km나 인구감소지역은 15개 이상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에는 낮은 점포 밀집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병·의원에서 탈모약, 비만약 처방 시 온누리상품권이 사용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누리가맹점 등록·갱신 기준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가맹 적합 업종에서 병의원·법무·회계·세무 같은 전문 업종을 뺐다. 다만 약국은 노년층 접객 효과를 감안해 가맹을 허용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기업형 슈퍼마켓(SSM) 처럼 온누리상품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점포에 대해 가맹점 등록·갱신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도입한다.

중기부 김경주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 가맹점 취소라는 불이익 처분을 소급 적용하면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며 “적법하게 받은 가맹 유효기간 3년을 인정해 준다는 법리 하에서 제도를 마련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올 연말까지 30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절반 가량은(매출액 기준에 따라) 갱신이 거부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방 관광을 유도할 수 있게 연계 혜택을 늘리고 외국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지역에서 디지털온누리 상품권을 이용하면 할인·환급 혜택에 지역 명소 입장권, 숙박권, 지역 쇼핑몰 할

인쿠폰 등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전통시장과 인근 유망 관광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지역 여행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자국에서 쓰던 앱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체계도 구축한다. 약 40개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알리페이는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위치를 네이버·카카오의 영어 지도 앱에 표시한다.

한편 중기부는 상생배달앱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할인쿠폰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 1200억원을 배정하고, 12개 공공배달앱 가운데 적용 대상을 내년 중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상생배달앱이 전통시장·지방정부와 함께 행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예산도 25억원을 편성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할인수단을 넘어 전통시장과 지방상권으로 소비를 유입하고 지역관광과 연계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는 지역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키겠다”면서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테슬라·中 자율주행 확장… 상용화 가속

테슬라, 300억달러 신용한도 확보
中업체, 로보택시 해외 운행 확대
국내선 양산차 자율주행 적용 추진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이 기술 실증을 넘어 실제 차량 운행과 양산 적용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테슬라는 대규모 투자 여력을 확보한 가운데 중국 업체들은 로보택시 운행 대수를 늘리며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의 양산 승용차 적용이 추진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달 29일 총 3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신용한도를 확보했다. 올해 250억달러 이상의 설비투자를 예고한 테슬라는 AI 연산 인프라와 생산시설 등 미래 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규 신용한도는 특정 사업에 한정된 자금은 아니며 회사는 올해 이를 인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사업 확대와 함께 안전기준 대응도 과제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지난



강남구 일대에서 SWM.ai가 운영 중인 구역형 자율주행 로보택시. /KGM

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운전대와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전용차 ‘사이버벡’을 상업배치했다. 미국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이후 사이버벡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MVSS)을 충족한다고 자기인증한 근거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업체들은 운행 규모 확대와 해외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모멘타는 현재 3개국에서 1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수백 대, 2027년 수천 대로 늘릴 계획이다. 중국을 비롯

해 독일 뮌헨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등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두바이와 유럽, 일본 등으로 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포니AI는 지난 6월 말 기준 로보택시 1975대를 운행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350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버와는 유럽에서 2000대 이상의 로보택시 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달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서 완전무인 로보택시 시험 운행에도 들어갔다.

국내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적용 범위가 로보택시에서 양산 승용차로 넓어지고 있다. 라이드플렉스는 지난달 30일 KG·현대모비스 등과 협약을 맺고 KGM 차량에 현대모비스의 SDV 플랫폼과 자사의 AI 자율주행 솔루션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로보택시·로보트럭 중심에서 완성차 B2B 시장으로 사업을 확대해 레벨2+부터 향후 완전무인 레벨4까지 적용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승혁 기자 sh95@

최우각·박동석 대표 ‘자랑스러운 中企人’

崔, 초정밀 기술로 27개국 수출 확대
朴, 숙련기술 향상·교류 활성화 기여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부가 2026년 3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와 박동석 피에스디이 대표를 선정했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대성하이텍은 1~2미크론 수준의 초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의 신뢰를 확보해온 초정밀 부품 전문기업으로, 1997년 일본 야마자키 마작과의 첫 거래를 시작으로 현재 27개국, 70여개 글로벌 기업에 8000여 종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최우각대표는 반도체·공작기계산업의 경기 변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속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



박동석
피에스디이 대표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 부품 확장 4대 성장축’으로 ▲방산 ▲로봇 ▲AI 데이터센터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고 사업 다각화를 추진해왔다.

박동석대표는 글로벌 수출기업협의회 회원과 기능한국인(제185호)협회 이사로 활동하며 숙련 기술인의 기술향상과 상호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전 ‘D-성장펀드’ 540억 규모 출범

중기부, 전북·울산 이어 세 번째 조성
모태펀드 350억 등 민관 공동 출자

세번째 지역성장펀드인 ‘대전 D-성장펀드’가 540억원 규모로 본격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대전 스타트업파크 본부에서 열린 ‘대전 D-성장펀드’ 결성식에 참석해 대전광역시에 중점 투자하는 대전 벤처모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끝내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북과 울산에 이어 세 번째로 결성되는 지역성장펀드인 대전 D-성장펀드는 35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해 대전광역시, 대전투자금융, 한국과학기술원(KAIST),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행복에너지, 지엔소프트 등이 출자자로 참여해 총 54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결성한다.

대전 D-성장펀드는 한국벤처투자, 지방정부와 주요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

회를 통해 출자분야를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약 8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4월, 대전시가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에 선정됨에 따라 대전과학기술원 중심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도시 특화펀드를 만든다.

이미 모펀드가 결성된 전북, 울산 지역 성장펀드는 10월말 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하고, 대경권 지역성장펀드와 서남권 지역성장펀드는 각각 10월말, 11월 초에 모펀드를 결성해 연내 자펀드 출자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배우 지진희와 신규 기업 PR 전개

귀뚜라미가 대한민국 핵심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60년 냉난방공조 기술을 새로운 광고 캠페인으로 선보인다. 귀뚜라미그룹은 전속 모델인 배우 지진희와 함께 신규 기업 PR 광고 ‘K-핵심산업 중심에 60년 냉난방 기술’을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귀뚜라미는 지난 2022년부터 보일러 전문 기업에서 종합 냉난방 에너지그룹으로 도약한 모습과 확장된 사업영역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업 PR 광고 캠페인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반도체, 2차전지, 원전 등 대한민국 주요 산업 현장에서 활약하는 냉난방공조 기술력을 집중적으로 조명

하며 미래 산업을 지원하는 선도기업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올해 광고는 ‘귀뚜라미 60년 냉난방 기술’이라는 핵심 가치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주요 산업과 연결해 귀뚜라미그룹의 미래지향적인 기술력을 표현했다.

광고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대한민국 핵심산업을 주제로 꾸며진 전시대를 둘러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각 전시대에는 반도체, 2차전지, 원자력발전소, 잠수함 등 K-핵심산업을 상징하는 조형물과 함께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귀뚜라미의 냉난방공조 기술이 생동감 있는 3D 영상으로 펼쳐져 관람객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김승호 기자